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느 목사님의 유언

암으로 4개월의 시한부 삶을 살다 2000년 10월에 돌아가신 김치영 목사님이라는 분의 장례절차에 대한 유언입니다. 2개월 전에 자신의 장례에 관한 내용을 구술한 것입니다.

“ 입관 후에는 장의사가 관을 관보로 관을 덮는다. 흰 무명에 붉은 색으로 ‘ 십자가지도 (十字架之道) ’ 쓴 천을 덮어다오. 장지에 가서 하관을 한 후에는 그 천을 벗겨서 내 몸에 덮어라. 그 위에 흙을 채우면 된다. 묘비에는 목사라는 칭호를 쓰지 마라. 그냥 '김치영' 이라고 이름만 써라. 묘비에는 성서 구절을 하나 새겨다오. 마태복음 6장 10 절의 'Thy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이 좋겠다. 내 평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며 살았으니 ..

너희들은 일절 상복을 입지 마라. 그냥 평상복을 입도록 해라. 깨끗한 정장 차림이면 된다. 유족의 표시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넥타이 정도는 공동으로 준비해도 괜찮겠지. 그러나 검은 색으로 하지는 마라.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삶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것이야. 인간적으로 슬프겠지만 터져 나오듯이 울거나 곡을 하지는 마라. 믿음도 소망도 없이 모든 것이 끝난 사람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부조는 받지 않도록 해라. 가족들에게 다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목사로서 평생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았다. 사람들이 번거롭게 장례에 참석하는 것만도 미안한 데, 부조까지 받아 부담을 주고 싶지 않구나.

장례예배의 모든 절차는 하은규 목사에게 맡긴다.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형식적으로 순서를 하나씩 맡는 것이 뭐가 좋겠니? 한국교회가 총회장을 지역 안배로 매년 돌아가면서 뽑더니, 요즘은 매사에 구색 맞추기에만 신경을 쓰는구나. 무슨 행사나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 필요한 분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직책' 에 따라 순서를 맡기지. 설교나 기도도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이런 식으로 맡아서 한다. 내 장례를 형식적으로 맡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목사가 사회와 기도 등 모든 순서를 맡도록 해라. 설교는 내가 준비한 것을 읽으면 되겠지. 하 목사에게 연락해서, 미리 준비해 설교 좀 힘있게 하라고 해라. 처음 보는 원고 읽듯이 더듬더듬하지 않도록 말이다. (웃음) 장례예배 때 죽은 자를 위한 일체의 조사나 약력 소개를 하지 마라. 매우 단순하고, 은혜 넘치는 예배 외에는 어떠한 것도 추가하지 않도록 해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족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 철저하게 죄인으로 살다가 간다. 하나님 앞이나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언제 태어나서, 무슨 공부를 했고, 어떤 직함을 가졌고, 이런 것들을 너절하게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싫어서 묘비에 '목사' 칭호도 썼다. 내가 무슨 내세울 것이 있느냐? 내 시신을 앞에 두고 추모사를 읽고, 약력을 나열하며,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말한다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다.”

◀눈물나는 밤엔 우머의 촛불을▶ 우리 학원의 모토는... "큰 놈 되거라"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3년 교회생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성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 5권 6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3년 2월 9일
☎520-9464,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		

내 마음의 보석

처음부터 보석을 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살림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공장을 하는 남편의 얼굴에 늘어나는 그늘을 보면서 석이 엄마는 원가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것을 찾다가 몇개 안 되는 결혼 예물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다이아몬드는 못해 주겠구, 사파이어로 하면 어떨까? 나중에 꼭 자기 맑은 눈동자만큼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 줄게.”

결혼 전에 남편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때 신부는 신랑의 패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신랑의 눈빛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난다고 생각하면서 그녀는 ' 동반자의 손' 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10년, 아직 친구들한테 자랑할 만한 보석류는 없지만 몇 개 안 되는 반지와 목걸이를 언제나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행복을 가꾸어 가고 있었습니다. 석이 엄마는 화장대 서랍에서 아끼고 아끼던 반지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책꽂이 아래 서랍도 열었습니다. 결혼 사진 앨범 옆에 조그만 종이 상자가 보였습니다. 무심코 열어 보던 석이 엄마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결혼 전과 신혼 초기에 보냈던 카드며 메모지가 빛을 뿜고 있었습니다.

"당신보다 귀한 선물은 없소. 이런 선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오"

-구주 나신 날에 민-

"생일을 축하하오. 아련 생일 축하카드를 한 70장만 더 썼으면 좋겠소."

-너무 좋은 날에 민-

이런 내용이 담긴 카드와 메모지였습니다. 석이 엄마는 그것을 방바닥에 늘어 놓고 한참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값진 보석이 없다는 것을, 이런 보석이 있는 한 다른 패물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정말 누구에게도 팔 수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 최후의 보석' 이었습니다. 석이 엄마는 그 보석을 끌어안았습니다. 왕관을 썼던 영국 왕세자비가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 보석의 광채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가 딸에게
지나간 남의 잘못을
얘기하지마라
거지는 쓰레기통을 뒤져
이미 버려진 음식을 줍더구나
넌 왕비처럼 우아하거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거라
위에서부터 짜면 편하기는하나
넌 믿을만한 자가 못된다
조금 불편하다고 돌아가는자
아무것도 말길 수가 없더구나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아서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도자
*찬송 Hymn	9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43(마태 6장)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주일학교
찬송 Hymn	326장	다 같이
기도 Prayer+		김순자 권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누가 22:1-6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심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변하는 마음, 변하지 않는 믿음'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98장'	다 같이
헌금 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1절: 최득수, 오지영 집사 가정, 2절: 같이)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2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가족찬송	Tea Time
2	김교섭	김경숙	이세진, 박혜련	경덕현, 고성일
9	김순자	김동숙	최득수, 오지영	권용일, 김경구
16	김영길	김반석	박 실, 변민강	김교섭, 김덕준
23	김종건	김봉희	정종일, 이선애	김반석, 김성국

'2003년 교회표어
"건강한 가정, 건강교회"(마 18:4)
부모의 기도받는 자녀
남의 형편 헤아리는 신앙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수요일예배: 저녁 7:30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청년부: 토 저녁 7시

- ☆어느새 많아져 버린 가재도구를 나르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별로 읽지도 않는 책을 몇 년째 끌어안고 다니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언젠가 입을거라며 차곡차곡 개켜져 있는 옷을 실으며 '이게 아닌데, 산다는게 이
게 아닌데' 생각만하면서 한 세월 다 보냈습니다
1. 교우소식
*개업: 이재영 집사. "삼우운송" "북부잔디". ☎449-1911
*이사: 김성국 목사. 55A Spencer St. Remuera. ☎ 520-9464
 2. '부활절 헌금을 위한 성경쓰기 봉헌'(담당: 박병민 집사. 항존직: 김영길 집사)
*지난 주 자원하신 "부활절헌금 성경쓰기"에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채워지기를
기다립니다(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원하신 교우께서는 준비된 규격종이를 사
용하셔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주십시오.
 3. '믿음의 어머니' 기도회: 10일(월) 오후 1시. 교회
 4. 남여성교회: 매월 마지막 주일 Teatime 시간에 정기월례회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5. 당회: 오늘 Teatime 후
 6. 당회결정사항: 선교지원
*오성교회를 위해 1년동안 교회사용료와 임성광 목사 세금지원
 7. 오글랜드 남성 중창단 "익투스" 정기공연
<일시> 오늘입니다(2월9일) 저녁 7:30 <장소> Pump House
*Pump House! 지난번 '성탄축하의 밤'의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곳 무대
에서 공연하는 교우여러분의 수고를 격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익투스: 김영길. 샬롬: 신경화, 이규임. 첼로: 박경주, 이요나
 8. 천선축구경기(남성교회, 청년): 은혜와진리교회(Howick)와 맞섭니다.
<일시> 16일(다음주일) 오후 5시 <장소> Edgewater college. 30Edgewater Dr. Pakuranga
*한주간동안 열심히 몸 만드세요!(감독: 박일영 집사. 주장: 이재영 집사)

◀작한 시인들▶ 지란지교를 꿈꾸며 - 휴양진 - *추천: 이지영 집사

저녁을 먹고나면 허물없이 차 한잔을 마시
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김치냄새가 좀 나더라도 흥보지 않을 친구
가 우리집 가까이에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길을 가다가 한 묶음 꽃을 사서 그
에게 안겨줘도 그는 날 주착이라고 나무라
지 않으며.....
우리의 손이 비록 작고 여러나 서로를 버
티어주는 기쁨이 될 것이며, 우리의 눈에
핏발이 서더라도 총기가 사라진 것이 아니
며 눈빛이 흐리고 시력이 어두워질수록 서
로를 살피주는 불빛이 되어주리라...

예전에 읽던 때와 다른 감
흥을 준 시였다면서 보내
오셨습니다.

세월이 자리잡는 깊이마다
예전의 것은 예전의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의미가 붙
고 추억이 침전되면 해프게
버려질 것 없이 가슴 헤집
는 아픈 아름다움이 됩니다.

지란이 뿜는 향기만큼 추
억을 멋지게 남겨줄 친구가
그리운 여름의 끝자락입니
다